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10. 8(월) / 총 1매(본문1)</b>
<b>담당 부서</b>	건축정책과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최대경, 주무관 정치영</li> <li>• ☎ (044) 201-3755, 4082, 4752</li> </ul>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

- 우리 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
  -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
- 감리단계에서의 협력은 주요공정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‘검토’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
  - 건축구조기술사 인원부족(약 1,000명)을 고려하여 ‘건축구조기술사’를 포함한 ‘건축구조’ 분야 고급이상 기술자\*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\* 대학 졸업 및 자격취득 후 건축구조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

< 보도내용 (10.7, 파이낸셜뉴스) >

◆ 「부족한 기술사 인력 ‘관피아’로 채워」

- ‘안심사회 구축’ 국정목표 위해서도 제도 손질 필요
- 구조기술사의 인원 부족 등을 문제 삼아 구조기술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로 감리 권한을 낮춘 것이다.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모두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해 특급기술자 지위인 건축사의 설계를 그보다 낮은 고급기술자가 허가하는 꼴이 됐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대경 사무관(☎ 044-201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